

W_F_017

도체빗불

2016년 11월 24일, 구좌읍 종달리 송미영씨 댁, 송정희 조사.
고순안(여, 1947년생, 구좌읍 하도리)

[제보자] 도체빗불은 상도 상도 안모살동네가 이제.

[조사자] 안보살?

[제보자] 안모살동네. 상도.

[조사자] 안모살.

[제보자] 모살 동네게. 그이 멘수동 강 그 그디. 그디 그 옛날 그 수삼사건 후에 우리가 가서 사름 영 곳는 거 보면은 제사 먹으레 갈 때도 불 펜직허민 그디 넘어가젠 허민 돌을 해서 딱딱헹 때리거든. 돌을 딱딱허민 그 도체빗불이 도망가 분덴 헤여. 도망가 분덴 허곡 막 구신 막 영 허민 췄돈 내여. 옛날에 십원짜리 췄돈 던져, 던져 동 이제 강 제사 옛날엔 밤중에 열두시 넘엉 제 파지 파지 뒤사 끝나거든. 이것 저것 생각 안 형 열두시 제파지 끝나그네. 집이 들어오젠 허민 한시가 뛰어. 한시가 뛰가면은 그 밤중이니깐 도체비 나타낫다 해서 그디서 영 던져 동 듯날은 가보니깐 그것이 없더勒. 그 돈이. 엊어졌어. 허니깐 그 모살동네난 파서 들어갓 인지. 그 구신이 던질 때에 그걸 받았 간 건지 우리는 몰라. 겟 그런 역사가 잇덴 헤여.

- 핵심어 : 상도리, 안모살동네, 도체빗불, 돌, 췄돈, 멘수동